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적과 친구 [사사기 1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1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 아내에게로 찾아 가서 가로되 내가 침실에 들어가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2 가로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로 내가 생각한고로 그를 네 동무에게 주었노라 그 동생이 그보다 더욱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의 대신에 이를 취하라 3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을 해할찌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4 삼손이 가서 여우 삼백을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매고 화를 취하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화를 달고 5 화에 불을 켜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곡식 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베지 아니한 곡식과 감람원을 사른지라 6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혹은 대답하되 딘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취하여 그 동무 되었던 자에게 준 연고니라 블레셋 사람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를 불사르니라 7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은 후에야 말리라 하고 8 블레셋 사람을 크게 도륙하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거하니라 9 이에 블레셋 사람이 올라와서 유다에 진을 치고 레히에 편만한지라 10 유다 사람들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오기는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11 유다 사람 삼천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12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려고 이제 내려왔노라 삼손이 13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친히 나를 치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그들이 삼손에게 일러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붙일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줄들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14 삼손이 레히에 이르매 블레셋 사람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와 그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의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15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일천명을 죽이고 16 가로되 나귀의 턱뼈로 한더미, 두더미를 쌓았음이어 나귀의 턱뼈로 내가 일천명을 죽였도다 17 말을 마치고 턱뼈를 그 손에서 내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18 삼손이 심히 목마르므로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께서 종의 손으로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손에 빠지겠나이다 19 하나님이 레히에 한 우묵한 곳을 터치시니 물이 거기서 솟아나 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은 엔학고레라 이 샘이 레히에 오늘까지 있더라 20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이십년을 지내었더라

딘나에서는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삼손이 아내를 찾으러 돌아옵니다...아내 대신 그녀의 여동생을 위로 상으로 받습니다...이 합의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평화는 끝났습니다! 여우 300마리, 불타는 횃불; 그리고 모든 작물이 사라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격노합니다. 그들은 삼손의 아내와 그녀의 가족에게 복수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더욱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대량 학살합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만 보았을 때 죄의 타협과 그로 인한 슬픈 결과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주님께 불순종하면 재앙적인 결과를 거둡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일하셨습니다. 사사기 14:4를 기억하세요! *4 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관할한고로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14:4).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았습니다. 레히 주변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격노케 하지 않았습니까! **삼손을 당신들에게 넘기겠습니다! (구세주를 넘기세요-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은 포기했습니다. 현상 유지를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도 그들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하나

님의 백성이 죄의 지배 아래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들의 지배 아래 사는 것을 허용할 때, 우리가 더 이상 죄를 멸시하지 않고 죄를 번영하게 할 때, 죄와 싸우는 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 때 또는 우리의 원수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을 때 **삼손은 이스라엘에게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안전하다고 여겼던 영역을 파괴하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단순히 또 다른 사고 클럽이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주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고 그는 밧줄을 가는 실 다루듯 끊고 턱뼈를 잡고 블레셋 사람들을 시체 더미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 전체가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날카로운 풍자입니다. 그들이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서 승리하고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삼손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립니다. 그들은 수수께끼에 승리하고 내기에서 이겼지만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난장판이 된 결혼식을 정리했지만 그들의 농작물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딤나의 사람들과 딸을 불태웠지만 수백 명을 더 잃었습니다. 그들은 군대를 모았지만 당나귀 턱뼈로 전멸 당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적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들이 '더 높은' 것을 요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쳐두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백성에게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계속 배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성경적이 되고자 결심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우리는 죄에 노예가 되는 것이 더 편안한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사는 것이 더 편안한지? 우리는 타협에 편안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면 어디든 나아가 우리 주님 되신 구세주를 섬기고 싶어 하는 성숙한 신자들의 회중입니까? 우리는 마귀에게 위협적인 사람들입니까? 사탄은 유다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상대할 준비가 된 유일한 사람인 삼손 때문에 그랬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삼손은 갈증에 시달려 죽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하고 독립적인 사람은 완전히 의존적입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위대한 승리는 어떻게 될까요? 삼손은 주님께 의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받을 자격이 없는 또 다른 기적을 베푸시지만 그 분께서는 그의 은혜로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 세대 후에도 여전히 바위에서 물을 가져오십니다! (출애굽기). 그는 믿음으로 부르짖는 자들에게 항상 다가오십니다. 그는 항상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